
KIM GUILINE SOLO EXHIBITION

February 16 – March 25, 2017
536 W 22nd Street | Lehman Maupin
글 | 심민정, 아트모라 큐레이터 프로그램



Inside, Outside, 2008
oil on canvas
21.65 x 57.09 inches

한국 단색화의 대표작가인 김기린의 첫 미국 전시가 뉴욕 첼시, 리만머핀 *Lehmann Maupin* 갤러리 에서 열린다. 2017 년 3 월 25 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거의 선보여지지 않았던 1960 년대작업부터 밝은 색상의 모노크롬회화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2000 년대 작업까지 총 9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그의 작품 제목 <*Inside, Outside*> 와 같이 상반되는 개념의 양립을 말하고있다. 형상을 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한한 공간을 화면 너머로 제시하고있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의 작품 세계는 작가가 색을 버리고 흑백의 모노크롬회화를 제작한 70 년대 초부터 더욱 역력해지기 시작했다. 김기린은 서양에서 색으로 여기지 않는 검정색을 하나의 색으로 간주하여 본래 빛을 먹는 검정이 빛을 발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덧칠을 한 후 작업을 끝낸다. 붓을 들게 된 계기가 되었던 카지미르 말레비치 *Kazimir Malevich* 의 사각형 작업과 닮았지만 김기린 자신만의 것을 추구했다. 검은색을 화면 위에 씌우고 벗겨내고 다시 덧칠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하여 빛을 흡수하던 색을 오히려 빛을 발하는 색으로 바꿔놓았다. 본연의 검은색을 진정한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낸 것이다. 흰색 또한 다르지 않았다.

단색화는 1970년대 우리나라 미술계의 중심 흐름이었던 추상 경향의 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외국에서 나타났던 사조들의 흐름과도 관계를 가진다. 단색화는 서양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출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탄생된 한국화이다.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하고 구조를 단순화시켜 반복적으로 나타낸 작업은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유사해 보이지만, 미니멀리즘이 작가의 개념적 표현의 결과물인데 반해 단색화는 수행과정에 집중한 점에서 다르다.

김기린의 회화작업들은 캔버스 위에 한지를 여러 장 겹치고 그 위에 수차례 중첩된 물감을 통해 색감의 힘을 보여준다. 캔버스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덧대진 종이는 고랑처럼 흠이 패어 한국 문화 고유의 혼과 색채를 담게 되는데, 몇발자국 떨어져 작업을 마주 할 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디테일들을 가까이서 마주했을 때 만드는 이의 마음과 성실함이 주된 재료가 된 것 같은 감동을 주었다.

김기린(b. 1936)

김기린은 한국에서 문학을 공부하였고, 이후 프랑스로 이주, 디종대학교, 파리국립미술학교, 파리국립장식고등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김기린의 작업은 2011년 대구미술관, 2008년서울시립미술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기관에서 전시되었다. 그의 작품은 디종 3 미술관,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파리 퐁피두 예술 문화센터,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등에서 소장하고 있다.